유재석 "스무 번째 대상, 이런 날 올 줄이야"

방송 3사·백상예술대상 등 20년간 대상 20번
2010년부터 SBS 간판 예능 '런닝맨' 이끌어

'국민MC' 유재석(53)이 2024 SBS 연예대상을 받으며 통산 20번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재석은 29일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24 S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전현무, 신동엽, 이상민, 서장훈, 이현이, 김종국 등을 제치고 대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그는 2008, 2009, 2011, 2012, 2015, 2019, 2022년에 이어 올해로 SBS에서만 8번째 대상을 받았다.

KBS에서는 2005, 2014년, MBC에서는 2006, 2007, 2009, 2010, 2014, 2016, 2020, 2021년 대상을 차지했고 2013, 2021년 백상예술대상도 받아 이번이 통산 20번째 대상이다.

유재석은 "스무 번째 대상을 받게 됐다. 2005년 처음 대상을 받았고, 약 20년 만에 대상을 스무 번 받았다"며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요즘이야말로 웃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한다"면서 "예능 환경이 척박해지고 있고, 방송사의 모든 면이 예전처럼 넉넉하지는 않다. 모자람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동료와 선후배, 종사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유재석은 SBS에서 국내 최장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자 2010년부터 자리를 지켜온 SBS 간판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을 이끌고 있다. '런닝맨'은 온라인 시청자가 뽑은 최고 인기 프로그램상도 받았다.

PD들이 직접 뽑은 프로듀서상은 '미운 우리 새끼'와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출연 중인 이상민이, 최우수상은 '미운 우리 새끼'의 김승수, '정글밥'에 출연한 류수영, '골때리는 그녀들'에서 활약한 정혜인이 받았다.

우수상 수상자로는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의 조우종, '미운 우리 새끼'의 최진혁, '정글밥'의 유이가 호명됐다.

2024 SBS 연예대상은 당초 지난달 31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제주항공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되면서 해를 넘겨 이날 열렸다. 연합뉴스



유재석

전현무, 개인 3번째 MBC 연예대상 수상

"초심 잃은 적 없다… 비타민 같은 방송 만들겠다"

방송인 전현무가 올해 MBC 연예대상의 주인공이 됐다. 2017년, 2022년에 이어 세 번째 수상이다.

전현무는 지난 28일 저녁부터 29일 오전에 걸쳐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2024 MBC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대상 트로피를 건네받은 전현무는 "특별한 재능도, 취미도 없고, 외아들로 태어나서 공부만 했던 제가 유일하게 재밌어했던 것이 방송이고 예능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언젠가 나도 커서 작은 네모 상자 안에 들어가서 나처럼 외로운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며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릴 때 초심을 잘 유지하고 여기까지 와서 받은 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몸이 고돼도 한 번도 그 초심을 잃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현무는 "요즘 어떤 웃음을 드려야 하나 많이 고민하는 시기"라고 털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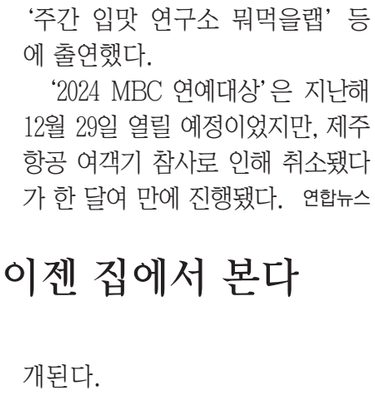
이어 "도파민보단 비타민 같은 방송을 만들고 싶다. 보고 나면 두고두고 여운이 남는 방송, 미소가 지어지는 방송, 건강한 웃음을 드리려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어릴 때 자신과 했던 약속, 여러분을 즐겁게 하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전현무는 2017년 '나 혼자 산다'로, 2022년에는 '나 혼자 산다'와 '전지적 참견 시점'으로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024년에 전현무는 '나 혼자 산다', '전지적 참견 시점', '선을 넘는 클래스', '송스틸러', '2024 아이돌스타 선수권대회', '주간 입맛 연구소 뭐먹을랩' 등에 출연했다.

'2024 MBC 연예대상'은 지난해 12월 2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취소됐다가 한 달여 만에 진행됐다. 연합뉴스


전현무





'히트맨 2'·'검은 수녀들' 나란히 100만 돌파

영화 '히트맨 2'와 '검은 수녀들'이 29일 나란히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배급사 바이포엠스튜디오와 뉴(NEW)가 밝혔다.

'히트맨 2'는 개봉 8일 만에, '검은 수녀들'은 6일 만에 100만 관객을 달성했다.

설 황금연휴를 노리고 개봉한 두 영화는 지난 24일부터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24~26일 사흘간은 '검은 수녀들'이, 27~28일 이틀간은 '히트맨 2'가 정상을 차지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예매율에서는 '히트맨 2'(24.5%)가 '검은 수녀들'(23.6%)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중이다.

'히트맨 2'는 특수요원 출신 웹툰 작가 준(권상우 분)이 신작에서 그린 내용이 실제로 벌어지며 겪는 일을 담은 코미디 액션물이다.

오컬트 장르인 '검은 수녀들'은 악령에 쓰인 소년을 구하려는 유니아 수녀(송혜교)와 미카엘라 수녀(전여빈)의 분투를 그렸다. 연합뉴스

로제 '아파트' 美 빌보드 '핫 100' 3위

최고 기록 자체 경신

블랙핑크의 로제(사진)가 히트곡 '아파트'(APT.)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자신이 세운 K팝 여성 가수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빌보드는 27일(현지시간) 차트 예고 기사에서 '아파트'가 전주보다 2계단 상승한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파트'는 이로써 지난해 10월 발매 이후 14주째(집계 기간 기준)에 자체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로제는 이 곡으로 앞서 기록한 K팝 여성 가수 최고 기록인 5위를 스스로 갈아치웠다.

'아파트'는 발표 직후 '핫 100'에 8위로 데뷔해 K팝 여성 가수 최초의 '탑 텐'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차트 내 하락 국면에 있던 이 곡은 새해 들어 차트 상위권을 독식하던 캐럴이 대거 빠지면서 순위가 역주행 상승해 차트 최상위권에 오르는 저력을 보이고 있다.

빌보드는 또한 '아파트'가 "K팝으로는 처음으로 빌보드 '팝 에어플레이'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도 전했다.

'팝 에어플레이' 차트는 주간 라디오 재생 횟수를 집계하는 빌보드의 세부 차트로, 종전 K팝 최고 순위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히트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기록한 5위였다. 연합뉴스


로제

임영웅 콘서트 영화, 이젠 집에서 본다

31일 넷플릭스 공개

가수 임영웅이 지난해 5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연 단독 콘서트의 실황 영화 '임영웅 아임히어로 더 스타디움'이 31일 넷플릭스에서도 공개된다.

30일 소속사 물고기뮤직에 따르면 이 영화는 작년 10만명의 팬을 만난 임영웅의 첫 스타디움 콘서트가 담긴 작품으로, 넷플릭스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일본·대만·홍콩·마카오에 공개된다.

이 영화는 영화관 개봉 당시 35만 관객을 모았고, 역대 공연 실황 영화 누적 관객 수 1위 기록을 세웠다.

물고기뮤직은 "화려하고 다채로운 임영웅의 모습, 웅장하고 다이내믹한 연출, 밴드 사운드, 퍼포먼스 등 공연 현장의 열기를 오롯이 느낄 수 있다"며 "공연 비하인드와 인터뷰 등을 통해 벅찬 감동과 여운도 안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취 축 CONGRATULATIONS 임
귀일중학교총동문회장
강 기 봉
귀일중학교총동문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귀일중학교 24회 동창회
회장 조 형 규 외 동창 일동

취 축 CONGRATULATIONS 임
귀일중학교총동문회장
강 기 봉
귀일중학교총동문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장전초등학교 22회 동창회
회장 박 영 관 외 동창 일동

당 축 CONGRATULATIONS 선
제3대 제주특별자치도탁구협회장
강 창 성
제3대 제주특별자치도탁구협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표선고등학교 제22회 동창 일동

영 축 CONGRATULATIONS 전
부이사관
김 미 영
(85학번)
부이사관(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장)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정보공학과) 총동문회 일동